

해외석유정보

본란은 해외석유산업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석유협회에서 발간중인 석유정보다이제스트 내용을 발췌하여 실은 것이다.
- 편집자 주 -

미국, 휴대전화로 주유 정산

미국에서 1,700개의 피나계열 주유소와 174개의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는 이스라엘 최대 석유기업 아론(본사 이스라엘)은 휴대전화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주유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것은 Mobil이 개발, 실용화하고 있는 'Speed pass'의 휴대전화형이라 할 수 있다. 피나계열 주유소에서 이 회사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주유대금, 세차요금, 병설편의점내 지불 등 모든 것이 휴대전화대금으로 일괄 청구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당초, 이스라엘내에서 200만명의 고객을 가진 휴대전화회사와 협의를 거쳐 시험단계에 들어가 성공함으로써 실용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이스라엘내에서 실용단계에 들어간 후 미국에서 시험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주유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화번호와는 별도로 비밀번호의 등록이 필요

하다. 계량기를 작동시키는 경우 등에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이 시스템은 주유고객뿐만 아니라 주유소 딜러들에게도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것은 계량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하기 때문에 딜러측이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영업활동은 딜러 입장에서만 효과적인 뿐 만 아니라 고객도 편리한 정보나 여러 특전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기존에는 스탬프를 모아야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경우에는 스탬프카드를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휴대전화서비스로는 전자적으로 포인트를 집계하기 때문에 카드를 잃어버린다거나 포인트가 없어진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 고객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다.

시스템을 개발한 휴대전화회사는 '드라이버의 주유개념이 변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주유가 즐거워진다' 라고 하고 있다.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게다가 휴대전화의 매출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연료유지신문, 2002. 1. 9〉

중국의 Petrochina와 SINOPEC의 경쟁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에너지시장인 중국에서 자사의 미래를 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형석유기업 SINOPEC과 Petrochina는 2개의 중국간 정치적 반목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앞세워 대만과의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Petrochina는 작년 12월, 대만의 CPC(중국석유공사)와 CPC공급용 나일브랜드원유 3만b/d를 처리하기 위한 거래에 조인할 예정이었다. 이것은 Petrochina로서는 중국 남동부의 대만해협을 건너 제품 소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나일브랜드원유는 Petrochina의 모회사인 CNPC(중국국영석유회사)가 수단에서 생산하는 원유로 중국 남동부의 정공업이나 운수수요에 딱 들어맞는데 50% 정도의 경우 유분을 얻을 수 있다.

2개의 고도정제시설을 갖고 있는 Petrochina(총능력 77만b/d)는 나일브랜드원유를 도입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황함량규제 강화에 대비해 고품질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중국과 대만간의 석유 및 가스 거래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거래 시작을 위해서는 쌍방의 공식적인 승인이 필요하다.

대만에 손을 대고 있는 Petrochina의 급진 정책은 근본적인 전략문제에 관계된 것이다. 즉, 중국의 동남공업지대의 SINOPEC의 광대한 소매망에 어떻게 공급하는가이다.

하류부문 대기업인 SINOPEC은 Petrochina의 바로 앞마당까지 포함해 자사의 새로운 상류활동으로 Petrochina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

Petrochina의 206만b/d의 정제능력은 중국 북동

부 중심의 유전지대에 가까운 34개 시설에 걸쳐있는데, 향후 성장이 전망되는 중국의 연안시장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은 남동부의 廣東省, 福建省, 浙江省 등의 주요 중심지에 240만 b/d의 정제시설을 가진 SINOPEC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양사의 불균형은 상류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Petrochina는 212만b/d의 원유를 생산하는데 비해 SINOPEC은 약 40만b/d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작년초 지역의 약소 상류개발기업인 CNSPC를 인수한 후, SINOPEC은 해외유전생산을, 현재의 제로에서 2005년까지 6만b/d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SINOPEC은 중국 북동부 天津에서 4만b/d 능력의 원유 파이프라인 조업을 이미 시작하면서 Petrochina의 전통적인 상류부문조업지역으로 진출했다.

470만b/d의 중국의 석유수요 및 석유화학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은 Petrochina와 마찬가지로 중국 동남부 시장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경기후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만의 석유화학협회(CPC, Formosa Plastic 등)는 SINOPEC과의 합작사업에서 상해 남쪽의 鎮海에 총액 35억\$의 나프타 분해콤비나트에 대한 투자 승인을 대만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만일 중국정부가 정식으로 허가하면 이 설비는 杭州灣의 對岸에 건설되게 될 것이다. 杭州灣에 SINOPEC과 BP가 중국의 새로운 석유화학의 중심지의 중핵으로서 SINOPEC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연간 90만톤의 에틸렌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대만과 중국 본토간의 상류부문의 전략적 제휴계획은 양국간의 대규모 미개발 對南구조분지 굴삭을 위해 CPC와 CNOOC(중국국영해양석유회사)간의 새로운 합의로 확실해진다. 빠르면 2002년 1/4분기

부터 총액 2000만\$ 정도 투자해서 굴삭탐사 및 시추 정을 굴삭할 예정이다.

(연료유지신문, 2001. 1. 9)

전략상품, 석유

중동사정에 밝은 일본석유업계의 어느 간부가 현재 미국의 전략전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을 얘기했다.

결프전 때 다국적국의 이라크공격은 가공할만했고 후세인대통령 축출은 시간문제라고 생각되었지만, 미군은 마지막까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아프간전쟁에서도 탈레반 기지를 철저히 폭격하고 특수부대를 투입해 테러조직 알케에다의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을 계속 수색하고 있지만, 잡았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만큼 타격을 주고 살살이 수색했는데도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 왜인가. 확실히 '끝장' 내면 미국은 이 지역에서 철수해야만 한다. 미군이 현재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지역의 주변에는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중동과 그 북방에는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카스피해로 이어지는 광대한 지역이 펼쳐져 있다. 미국으로서는 오사마 빈 라덴의 생사를 밝히지 않고 당분간은 이대로 탐색을 계속하면서 이 지역 일대에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오사마를 지지하는 과격파 조직의 거점은 아프간 뿐만이 아니라 소말리아나 예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도 있다고 한다. 빈라덴지원의 의혹이 있으면

미국은 언제라도 행동을 개시해 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 냉전구조가 무너지고 경제적으로는 American Standard의 일극체제가 지구상을 제패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소련의 붕괴로 가상적국이 없어져 미국의 군사행동은 오히려 제약을 받아왔다. 따라서, 후세인의 존재나 빈라덴의 탐색은 이 지역 일대에 미국이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간부의 관측이다. 테러제압을 이유로 제7함대도 인도양에 출동하고 페르시아만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중동지역 전체의 확인석유매장량은 2000년 말 현재 6,530억Bbl, 세계 전체의 65.3%를 차지하고 있다. 사우디만 해도 2,617억Bbl, 세계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라크가 1,125억Bbl, UAE가 978억Bbl, 쿠웨이트가 965억Bbl, 이란이 897억Bbl 등이 매장되어 있다.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중동 전체 기준으로 52조5,200억m³, 세계의 35.0%를 차지한다. 석유만큼은 아니지만, 구소련 지역의 56조7,000억m³ 다음 가는 거대매장지역이다. 미국 입장에서 중동은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전략지역임에 틀림없다. 특히, 사우디는 미국의 국가안전보장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국가이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모두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사우디가 인구 급증과 젊은 층의 실업률 상승으로 사회불안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불안한 상태이다. 이란, 이라크에 이어 사우디까지 국왕제가 무너지는 사태에 처하게 되면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이나 아프간의 북방에 펼쳐져 있는 카스피해 주변 지역도 중동에 필적하는 석유·천연가스 잠재매장지역으로 점차 각광을 받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권내의 여러 나라에는 그 동안 서구열강들은 접촉할 수 없었던 만큼 매력은 크다. 미국으로서는 어떻게든 영향력을 확보해두고 싶은

지역일 것이다.

제1, 제2차대전때 석유는 가장 중요한 전략물자이고 열강이 자원분쟁을 하면서 석유가 국제정치나 외교를 움직이고 경제에 영향력을 미쳤다. 전후는 아랍 산유국이 석유를 무기로 OPEC을 형성, 거듭되는 석유위기가 세계의 정치경제를 흔들었다. 최근에는 국제화·자유화의 진전을 배경으로 석유는 시장상품 취급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정치경제의 심장부에서는 여전히 석유가 변함없이 중요한 전략상품이라고 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자원의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Oil Report, 2002. 1. 21〉

일본의 세계개혁과 석유

낙관할 수 없는 특정자원 재검토

일본은 지금 세계개혁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세제조사회는 1월 17일에 코이즈미 수상의 지시를 받아 세계 전반에 걸친 재검토에 착수해 6월에 개혁안을 확정한다. 성역 없는 재검토를 천명해온 만큼 검토는 특정자원을 포함해 폭 넓게 진행되는데, 석유세제도 상당 부분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코이즈미 수상은 세계개혁을 구조개혁의 핵심으로 의미를 부여해 검토결과를 2003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석유업계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석유세제 경직화를 심화시켜 온 도로특정재원이 재검토된다는 것에서 의의는 크다 하겠다. 그러나, 자원부족을 배

경으로 용도확대를 피할 움직임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어 특정자원 재검토가 석유세세부담 경감으로 연결될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자칫하면, 세계개혁의 결과가 오히려 부담증가 쪽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올해의 세계개혁은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중대한 전기가 될 수 있어 석유세제개정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석유세수는 여전히 ‘홀륭한’ 정책재원으로 여겨지고 있어 세계개혁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 세부담이 늘더라도, 그것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데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불투명한 세계개혁에 농락될 지도 모른다.

정부세제조사회는 현행 세제를 폭 넓게 검토 중에 있는데,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개인소득세는 과세최저한의 인하로 증세, 최고세율 인하나 누진세율 평준화로 감세 검토를 추진한다. 법인세는 투자촉진세제 신설에 의해 투자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조세특별조치 폐지나 축소를 검토한다. 정책감세 대상이 되는 조세특별조치는 정책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석유산업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석유화학용 국산나프타나 농림용 국산B-A 유에는 관세·석유세 환급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것은 관세나 석유세가 경감·면세되어 있는 수입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초저유황경유 공급에 따른 세제상 우대조치와 같은 정책감세가 향후 인정받지 못하면, 환경대책상 부담증가를 석유기업이 전면적으로 떠안아야 한다. 이번 세계개정에서는 조세특별조치가 축소되어 정책감세 여지가 축소되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증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법인사업세를 과세하는 외형 표준과세 도입도 검토과제중 하나이다.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임금 코스트이기 때문에, 고

용유지에 힘쓰는 과정에서 임금부담이 커진 기업이나 노동집약형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증가가 상당히 커진다. 기업도 법인사업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되면 어려워진다. 한편, 상속세나 증여세 경감, 토지세제 등 자산과세도 재검토된다. 이것이 실현되면, 상속을 받아 영업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는 구제될 수도 있다.

이번의 세계개혁에서는 지금까지 터부시되어 온 소비세도 검토 대상이다. 서민의 반발을 초래할 지도 모르는 소비세율 인상에는 역시 신중한 자세이지만, 성역 없는 개혁 단행이라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볼 때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에는, 징세 비중을 직접세에서 간접세로 바꾸는 방향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현재의 소비세 5%에서 10%, 경우에 따라서는 15%로까지 인상될 가능성도 크다. 소비세 도입 시에 석유 이외의 물자나 상품은 물품세로 調整併課되었지만, 석유만은 특정 자원이라는 이유로 기존 석유과세 위에 또 다시 소비세가 과세되어왔다. 이 결과, 휘발유에는 휘발유세에 또 소비세가 부과되는 2중과세의 모순이 발생했으나, 소비세율이 3%에서 5%로 인상되었을 때도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아 과세폭이 더욱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소비세인상을 검토하기 전에 이러한 석유세제의 모순 해소를 위해 논의가 될 지, 앞으로의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그러나, 석유업계 입장에서 이번 세계개정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도로특정재원의 일반재원화와 환경세 신설 움직임이다.

도로특정재원과 환경세

도로특정재원 재검토가 석유과세 경감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부담증가로 이어질 것인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적어도, 정부세제조사회

의 세계개정대강을 볼 때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정부세제조사회는 작년에 정리한 세계개정대강에서 에너지 관련 제세와 환경 문제에 대해 향후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존 에너지 관련 제세 중, 특정재원에 관해서는 「특정한 공적 서비스로부터의 수익과 부담간에 밀접한 대응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합리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왜곡해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타당성을 음미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도로특정재원에 관해서는 「어려운 재정사정이나 최근의 도로정비 개선사정 등을 고려하면, 일반재원화를 포함하여, 그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다수」라며 도로특정재원의 일반재원화를 검토하는 방향을 시사했다. 그러나, 「일본의 연료과세 세부담수준은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높지 않은 수준에 있고, 또한 지구온난화문제 차원에서 볼 때도 이것을 낮추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한 후, 「향후, 특정재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제세 등에 관해서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폭 넓은 관점에서 그 방향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어떤 근거를 갖고 연료과세부담이 높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지 알 수 없지만, 미리 연료과세는 낮추지 않는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세계개혁에 들어간다면 정말 우스운 얘기이다. 따라서, 이번 세계개혁에 의해 도로특정재원이 재검토되더라도, 그것이 석유제세 경감으로 연결된다고 기대해서는 안되는 상황에 있다.

한편, 환경문제에 대한 세제상의 대응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널리 부담을 요구하게 되는 문제이니 만큼, 국민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오염자부담 원칙(PPP)에 입각해 폭 넓은 차원에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문제에 대해서는 「교토의정서 체결을 위한 국내 제도 정비·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 방법, 자주적 노력, 경제적 방법 등 각종 방법의 적절한 조합」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세제면에서 대응해 간다」라고 하고 있다. 경제적 수법의 하나로서 환경세나 탄소세 도입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단지, 정부 세제조사회는 「기존의 에너지 관련 제세와의 관계에 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세 도입시에는 당연히 석유세제로 調整併課될 것이다. 소비세 도입시에 석유만 調整併課되지 않지 않았던 것은 특정재원이었기 때문인데, 도로특정재원이 일반재원화되면 소비세의 2중과세를 재검토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세계개혁은 석유세제의 모순을 해소하는 돌파구가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환경세가 현행 과세와 반드시 조정된다고 하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논의를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한다.

이상한 '성역 없는 재검토'

석유에 징수되는 세금은 2001년도 예산 세수 전망에서 총액 5조623억엔, 여기에 單純併課되고 있는 소비세분 약 8,050억엔을 가산하면, 6조엔에 가깝다. 이 중, 휘발유 세수 3조1,400억엔, 경유引取稅 1조2,472억엔, 석유가스세 280억엔 등 총 4조4,152억엔으로 석유세수의 대부분이 도로정비 특정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도로정비5개년계획은 1954년에 시작되었는데, 휘발유세는 이 때부터 특정재원화되었고, 경유引取稅는 56년 신설 때부터 도로정비의 특정재원이다. 도로정비5개년계획의 예산규모는 계속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휘발유세와 경유引取稅도 증가해왔다. 64년 4월에 휘발유세는 28,700엔/kl, 경유引取稅는 15,000엔/kl로 인상되어 기본세율의 한도에 달했다. 그러나, 그 후도 재원확보를 위해, 잠정세율을 적용해 계속

늘어나 현재 휘발유세는 53,800엔/kl, 경유引取稅는 32,100엔/kl로 기본세율의 2배 이상이나 되고 있다.

현행 제12차 도로정비5개년계획은 2002년도에 종료되고 휘발유세와 경유引取稅의 잠정 세율적용 기한도 2003년 3월을 기해 종료된다. 따라서, 도로정비특정재원의 일반재원화에 대한 검토는 올해 마무리해야 한다. 「道路族」의 강한 결속으로 지켜져 오면서 난공불락이던 도로정비특정재원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을 지가 세계개혁의 큰 초점이다. 단지, 일반재원화가 실현되더라도 잠정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 세부담 경감으로 연결되지 않아, 석유업계 입장에서는 개정에 따른 의미가 없어진다. 휘발유세나 경유引取稅에 기본세율을 크게 상회하는 잠정세율이 적용된 것은 어디까지나 도로정비재원확보 목적이다. 따라서, 과세목적이 소멸되면 잠정세율은 우선 기본세율로 환원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에 대해 확실히 명시되지 않고 도로정비특정재원의 일반재원화만 선행되면, 석유세수 용도가 끝도 없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재원이 부족할 때 세원을 찾다 보면 그 화살이 석유업계에 대한 新稅 구상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일이다.

성역 없는 구조개혁을 배경으로 세계개혁을 추진하는 코이즈미 수상의 의지는 강하다. 한정된 재원에서 구조개혁과 경기부양이라는 2마리 토끼를 쫓는 것은 좋지만, 과연 석유업계의 오랜 숙원인 「공정·중립·간소한 석유세제 실현」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문제이다. 석유세제의 틀이 다시 재검토되더라도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나 「다중·다단계·거액·고율, 불합리·불공평한 석유과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곤란하다. 2003년도의 세계개혁논의는 경제재정자문회의나 자민당의 세제조정까지 추가되어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석유과세 경감투쟁은 예년에 비해 더욱 힘이 들 것 같다. 석유업계는 세부담 확대·경감 2

가지 경우 모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실히 준비해야 한다.

(Oil Report, 2002. 1. 28)

非OPEC의 대산유국 노르웨이

유럽의 비OPEC 대산유국 노르웨이는 EU회원국 은 아니지만, 인근 유럽국가와의 수출입을 통해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틀림없다. 노르웨이 경제는 석유·가스 부문에 힘입어 93년 이래 계속 확대되어 inflation 없는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98년에 석유가격이 하락하여 석유산업과 제조업에 대한 투자부진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줄어들었다. 그 후, 석유가격 상승, 이자율 저하에 의해 99년 후반부터 회복세로 돌아섰다. 2000년은 견조한 확대 궤도에 올랐지만, 2001년부터 다시 경제성장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IEA의 Robert 전무이사가 노르웨이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했다. '노르웨이는 OECD에서는 미국과 멕시코 다음가는 3번째 대산유국이자 최대 수출국이다. 동시에, EU에서는 Russia와 Algeria 다음가는 유럽의 3대 천연가스 공급국이기도 한다. 따라서, 노르웨이의 정책은 세계 석유시장 뿐만 아니라, 유럽의 가스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

석유

노르웨이의 석유와 가스는 노르웨이 수출총액의

40%, GDP의 최고 16%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와 컨덴세이트 생산량은 2007년 이후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1986, 1998년에 이어 2002년에도 석유가격 인상을 위해 감산을 실시했다. IEA는 노르웨이의 생산제한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노르웨이는 이 견해에 이의를 주장하고 있다. IEA는 2001년 6월 국영회사 Statoil사 주식 18.2% 공모에 관심을 갖고 있다. 노르웨이정부는 최종적으로 Statoil사의 주식 보유를 3분의 2로 줄일 계획이다. IEA는 그것을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기에 실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스

노르웨이는 현재 가스시장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예전에는 천연가스 계약의 대부분은 가스교섭위원회(GFU)가 맡아서 했었다. 2001년 6월 이후 정부는 가스판매 통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2002년 1월에 GFU를 폐지했다. 현재 기업은 보유 가스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그래도, 국영 Statoil사가 노르웨이 가스 수출의 3분의 2를 여전히 담당하고 있다. 가스 판매정책과 가스자원 보존정책은 노르웨이에서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가 GFU 폐지 후에 어떠한 자원보존정책을 취할 것인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자원보존정책은 산업계와 협의하면서 진행시켜야 하다. 또한, 새로운 민간의 판매·경쟁제도와도 양립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가스생산자가 자기의 가스를 경쟁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하도록 IEA는 요청하고 있다.

전력

노르웨이는 1인당 전력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다. 노르웨이의 전력은 거의 대부분 수력발전인데, 현재, 대규모 신규 수력발전 개발계획은 없



다. 가스 화력발전소는 예전에 허가되어 있다. 배출 규제는 다른 유럽 국가와 같은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전력시장은 1991년에 개혁이 실시되었는데, 필요에 따라 기본적인 전력시장의 설계를 진행시켜 왔다. 1997년에는 효율 향상을 위해 송전요금 상한이 마련되고 이익 폭이 정해졌다.

전력산업은 민영화되어 있지 않다. 발전능력의 약 57%를 시나 군 등의 지자체, 약30%를 중앙정부, 약 13%를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지구환경

교토의정서에서 노르웨이는 2008~2012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1% 증가 수준으로 억제한다고 약속했다. 배출량은 '99~2000년 기간에 1% 감소했지만, 현재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면, 2010년에는 목표를 20%이상 웃돌 가능성이 높다.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은 석유·가스생산 부문과 수송부문이다. 석유와 가스 부문에서 배출되는 CO₂는 2005년경에 피크에 달한 후 감소한다.

노르웨이

(일본 외무성)

1. 주요산업 : 수산업, 해운업, 석유산업
2. GDP : 1,623억\$(2000년)
3. 1인당 GDP : 36,100\$(2000년)
4. 경제성장률 : 2.0%(2001년 추정)
2.0%(2002년 전망)
5. 물가상승률 : 3.0%(2001년 추정)
6. 실업률 : 3.4%(2001년 추정)
7. 총무역액
 - 수출 : 57,930백만\$(2000년)
 - 수입 : 33,736백만\$(2000년)
8. 주요무역품목 :
 - 수출 : 원유, 천연가스, 어류, 철

- 수입 : 기계류, 수송기기(선박, 승용차)

9. 주요무역상대국

- 수출 : 스웨덴, 독일, 영국, 네덜란드

- 수입 :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10. 통화 : 크로네

11. 경제현황

① 노르웨이경제는 석유·가스부문에 힘입어 1993년 이후 계속 확대되어 인플레이션 없는 경제성장을 지속해왔으나 석유가격 하락, 석유산업 및 제조업에 대한 투자부진으로 1998년에 경제성장 속도가 감소했다. 그러나, 그 후 석유가격 상승, 이자율 하락 등에 의해 1999년 후반부터 회복. 2000년은 견조한 확대궤도에 올랐으나 2001년부터 다시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② 2001년의 실질GDP성장률은 1.6%로 전년의 2.3%를 밑돌 것으로 노르웨이 재무성은 전망하고 있다.

③ 1998년은 6%를 넘는 임금상승률이 문제가 되었는데, 1998년의 노사협의로 임금 상승률을 억제하는데 합의해 2000년에는 3%대로 떨어져 현재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④ 장기적으로는 복지제도 개혁 등에 의한 노동시장의 공급능력 확대가 필요하다. 또, 석유산업 의존체질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과제이다.

(Oil Report, 2002. 2. 25)

수퍼메이저의 2001년 영업실적

ExxonMobil의 2001년 세후 순익은 특별비와 합병효과를 감안하지 않으면 153억2,000만\$로 2000년의 177억2,000만\$를 13.5% 밀돌았다. 2000년의 영업실적은 메이저간 합병을 마무리하고 '99년 11월에 새로 출범한 동사가 합병직후에 기록한 사상최고이익(99년 Exxon과 Mobil의 합계 순익은 79억1,000만\$)이기 때문에, 이익이 감소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높은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1년 매출액은 2,129억\$(전년은 2,327억4,800만\$)를 기록했다. 매출액이익률은 7.20% 작년의 7.61%에 비해 그다지 나쁘지 않다. 단지, 2001년 4/4분기 수익은 26억8,000만\$로 전년 동기의 52억2,000만\$보다 48.7% 감소해 미국테러사건후의 어려웠던 경영환경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매출액은 473억\$(643억4,300만\$)이고, 매출액이익률은 5.7%로 전년 동기의 8.1%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다.

Royal · Dutch · Shell의 전체 순익(Adjusted CCS-재고평가의 영향을 제외한 원가를 이용해 산출한 수익)은 2001년에는 120억\$이다. 2000년의 131억\$를 8.4% 밀돌았지만 역대 2번째의 높은 수준이며, 석유제품부문(OP)과 탐광 · 생산부문(EP)에서는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Royal · Dutch · Shell은 다른 메이저와 같은 대형 합병은 단행하지 않고 있지만, 98년의 Restructuring plan이 완료되어 51억\$에 이르는 cost 개선효과가 영업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2001년 4/4분기 순익은 19억900만\$, 전년 동기의 35억7,900만\$ 보다 46.7% 감소해 역시 크게 떨어졌다.

BPAmoco는 98년 12월31일자로 새로운 회사로 출범, 그 후에 다시 Arco를 흡수하면서 수퍼메이저로 거듭났는데, BP는 2001년에는 80억1,000만\$의 순익(historical cost profit after taxation)을 기록했다. 2000년의 118억7,000만\$를 32.5%나 밀도는 수준이다. 그래도, 합병 이전보다 수익규모는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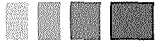
형화되었다. 2001년 매출액은 1,753억8,900만\$(2000년은 1,618억2,600만\$), 매출액이익률은 4.6%로 1년전의 7.3%에 비해 상당히 낮다. 2001년 4/4분기에 4억500만\$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전년 동기는 24억1,000만\$ 흑자를 기록했다. 2001년에는 8억\$의 cost 절감 등 세전 20억\$ 상당의 영업실적 개선목표를 달성했지만, 4/4분기의 거래환경 악화가 BP의 사업전반에 걸쳐 나쁜 영향을 미쳤다.

ChevronTexaco는 2001년 10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발족했는데, 순익(세후)은 2001년에 32억8,800만\$에 머물러 2000년의 77억2,700만\$보다 57.4% 감소했다. 특별비 17억4,300만\$와 합병효과 17억7,900만\$를 감안하지 않은 실적이다. 매출액은 1,062억4,500만\$(전년은 1,191억3,000만\$), 매출액이익률은 전년도의 6.5%에 비해 3.1%로 감소했다. 4/4 분기 순익은 전년 동기의 20억3,900만\$ 흑자에 비해 25억2,200만\$의 적자를 기록했다. 역시 특별비 18억5,200만\$와 합병효과 11억6,800만\$를 감안하지 않은 순익이며, 이것을 고려하면 흑자이다.

TotalFinaElf는 2000년 2월 EU의회의 승인을 받아 새로 출범했는데, 순익(임시비 항목 제외)은 2001년에는 75억Euro, 2000년을 2% 밀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메이저사와 같이 4/4분기에는 14억1,000만Euro에 머물러, 전년 동기대비34% 감소해 크게 떨어졌지만, 2001년 전체 실적으로 볼 때 영업실적은 양호하다.

상류와 하류부문 조업

ExxonMobil은 2001년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분야 순익이 2000년의 157억8,700만\$에서 146억5,600만\$로 약간 감소했다. 줄어든 것은 상류부문 조업이며, 미국 국내가 45억4,500만\$에서 39



억3,200만\$로 13.5%, 미국 국외가 78억2,400만 \$에서 64억9,700만\$로 17.0% 감소했다. 반대로 하류부문조업은 미국 국내에서는 15억6,300만\$에서 19억2,400\$로 23.1%, 미국 국외에서 18억 5,700만\$에서 23억300만\$로 24.0%나 증가했다. 화학부문 조업은 미국 국내가 6억4,400만\$에서 3억9,800만\$로 38.2% 감소하고, 미국 국외가 5억 1,700만\$에서 4억8,400만\$로 6.4% 감소해 모두 이익이 감소했다. 기타 부문 조업수익도 5억5,100 만 \$에서 4억8,900만\$로 11.3% 줄었다. ExxonMobil의 원유와 NGL생산량은 세계 전체 기준으로 2001년에는 254.2만b/d(2000년 255.3 만b/d), 천연가스 생산량은 102억7,900만ft³/일 (103억4.300만 ft³/일), 석유제품판매량은 797.1만 b/d(799.3만 b/d), 정유공장 처리량은 557.1만 b/d(564.2만b/d)이다.

Royal · Dutch · Shell의 경우에는 탐광 · 생산부 문 순익은 2000년의 94억3,600만\$에서 80억4,700 만\$로 14.7% 감소했다. 생산량은 98~2001년에는 연평균 4%로 늘어나 380만b/d 정도로 증가했지만, 가격하락에 의해 이익이 감소했다. 가스생산 부문에 서는 순익이 2000년의 7억5,300만\$에서 2001년에 는 12억1,700만\$로 늘어나 양호했다. LNG생산량도 2000년의 750만t에서 2001년에는 890만t으로 18.7%나 증가하여,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 하류에서 는 석유제품 부문 순익이 2001년에는 세계전체적으 로 33억7,700만\$에 달했다. 2000년의 30억3,800 만\$보다 11.2%나 늘어나 이것 또한 사상 최고를 기 록했다. 그러나, 화학부문의 환경은 나빠져 2000년 의 9억2,500만\$에 비해 크게 감소해 2억4,100만\$에 그쳤다.

BP도 상류나 화학부문의 영업실적은 좋지는 않았 지만, 정제 · 판매부문은 비교적 괜찮았다. 탐광 · 생 산부문 순익은 2000년 157억1,000만\$에 비해 2001년에는 144억9,800만\$로 7.7% 줄었다. Gas &

Power부문은 5억7,100만\$에 비해 5억2,100만\$로 8.8% 감소했다. 이에 비해 정제 · 판매부문은 2000 년의 45억5,800만\$에서 2001년의 48억3,000만\$로 6.0% 이익이 늘었다. 그러나, 화학부문은 10억 3,600만\$에서 2억4,200만\$로 격감하였고, 기타 사 업부문은 계속 적자(전년의 6억2,200만\$에 비해 4 억8,300만\$ 적자)를 기록했다. 2001년의 원유와 NGL 생산량은 193.1만b/d(2000년은 192.8만b/d), 천연가스 생산량은 86억3,200만 ft³/일(76억900만 ft³/일), NGL 판매량은 41만b/d(34.9만b/d), 석유제 품판매량은 620.6만b/d(552.3만b/d), 원유판매량은 447.3만b/d(598.4만b/d), 정유공장 처리량은 292.9 만b/d(291.6만b/d)였다.

ChevronTexaco의 조업 순익은 상류의 탐광 · 생산부문에서는 2000년 73억5,800만 \$에서 2001년에는 57억9,500만\$로 21.2% 감소한 데 비해 하 류의 정제 · 판매 · 수송부문에서는 15억\$에서 19억 3,000만\$로 28.7%나 늘어났다. 그러나, 화학 등 기 타 부문은 적자가 7억5,300만\$에서 9억1,500만 \$로 늘어났다. 2001년의 원유 · NGL 생산량은 195.9만 b/d(199.7만b/d), 천연가스 생산량은 44억1,700만 ft³/일(44억6,600만ft³/일), 석유제품판매량은 534.8 만b/d(518.8만b/d), 정유공장처리량은 257.4만 b/d(267.6만b/d).

TotalFinaElf는 2001년에는 상류부문 조업이익이 2000년의 101억1,000만Euro에서 89억6,000만 Euro로 11% 감소했다. 하류부문 이익도 31억4,000 만Euro에서 29억6,000만Euro로 6% 줄었다. 상류 부문에서는 탄화수소생산량이 220만b/d(212.4만 b/d)로 늘어났는데, 원유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았다. 하류부문에서는 정유공장 처리량이 2000년의 240 만b/d에서 250만b/d로 늘어나 가동율이 94%에서 96%로 올라갔지만, 제품시세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 화학부문 순익은 16억3,000만Euro에서 10억8,000 만Euro로 34%나 감소했다.

왕성한 투자의욕

2001년에는 4/4분기의 원유가격 급락 영향으로 메이저의 상류부문 이익이 감소했다. 제품시세 하락에도 불구하고, 하류부문에서 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정제부문의 철저한 합리화·효율화에 의해 일정한 정제 margin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이저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은 여전히 상류부문이며 절대액에서도 압도적으로 많다. 더구나,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의욕은 여전히 왕성하다.

ExxonMobil의 자본탐광지출은 2001년에는 123억3,300만\$에 달한다. 2000년의 111억6,800만\$보다 10.4%, **Sinopec** 권익구입분을 제외하면 17%이상 증가했다. 상류부문투자는 2000년보다 27%나 늘어났다. 2002년에는 상류부문 중심으로 투자를 10% 정도 늘릴 계획이다.

Royal · Dutch · Shell의 투자액도 2001년에는 거의 120억\$에 미쳐 전년 수준을 38%나 상회했다. 2002~2003년에도 2001년을 약간 웃도는 규모로 투자할 예정이지만, 여기에는 미국연방거래위원회의 승인이 완료된 **Texaco**로부터 미국내의 하류부문 시설을 취득하는 cost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BP의 자본탐광지출은 2000년의 476억1,300만\$에서 141억2,400만\$로 격감했다. 2000년 투자에는 **Arco**인수에 필요한 275억600만\$, **Burmah Castrol**의 주식 매수를 위한 46억8,600만\$, 유럽의 합작사업에 **Mobil**이 갖고 있는 주식취득용 14억5,000만\$ 외에, **Vastar**사의 소수 권익취득을 위한 16억8,800만\$, **Petrochina**주식 2.2% 취득용 5억7,800만\$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류부문의 탐광·생산투자는 2000년의 63억8,300만\$에 비해 2001년에는 88억6,100만\$, **Gas & Power**는 3억3,600만\$에서 3억5,900만\$로 늘어났다. 한편, 하

류부문의 정제·판매투자는 2000년의 86억9,300만\$에 비해 2001년에는 24억1,500만\$로 감소했다. 단, 화학부문 투자는 15억8,500만\$에서 19억2,600만\$로 늘어났다.

ChevronTexaco의 자본탐광지출은 2001년에는 120억2,800만\$로 2000년의 95억2,000만\$보다 확대되었다. 미국 내에서 2000년의 43억5,500만\$에 비해 59억3,100만\$, 미국 외에서 51억6,500만\$에 비해 60만9,700만\$로 모두 늘었다.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탐광·생산부문 투자액은 62억3,200만\$보다 늘어난 71억2,700만\$, 정제·판매·수송부문이 20억4,000만\$에서 21억4,400만\$, 화학부문이 1억8,700만\$에서 1억7,900만\$로 줄었다. 기타는 10억6,100만\$에서 25억7,800만\$로 급증했지만, 2001년의 기타 투자에서는 다이너지에 대한 다액의 추가투자나 **Tengizchevroil**의 5% 권익추가취득비가 포함되어 있다. 다이너지에 대한 추가 투자를 별도로 보면, 2000년과 2001년도 탐광·생산부문이 자본탐광지출총액의 68%를 차지했다.

TotalFinaElf의 경우에 2001년 투자액은 98억 Euro로 2000년보다 18% 늘었다. 투자액의 내역은 상류부문71%, 하류부문11%, 화학16%, 기타 2%이다. 2002년 계획에서도 2001년과 같은 97억Euro로 높은 수준의 투자를 유지한다. 투자구성은 상류73%, 하류14%, 화학13%, 중점대상은 역시 상류부문이다.

메가머저에 의해 체력을 강화한 수퍼 메이저는 하류부문에서는 Resutructuring을 통해 낮은 margin에서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상류부문을 강화하는 장기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Oil Report, 2002. 2. 25)